

순천시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양저우·日 기타큐슈와 함께 연중 다양한 문화교류 추진 지역 예술가·기업 등 기회 제공



지난 30일 인천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허석(가운데 오른쪽) 순천시장이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음을 알리는 기념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큐슈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순천시와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가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해 상상하고 협력하는 취지로 매년 각 나라에서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순천을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이번 인천시에서 각각 대표단,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대표단 등 이 모인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선포식을 가졌다.

순천시는 광역시급 청주를 제외한 기초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대표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는 순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도시 기념패를 받고, 순천시 주최로 3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실무협의를 진행해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반기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고 지난 8월 15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슬로건 선포식을 가졌다.

또 시는 개·폐막식 등의 공식행사 외에 핵심사업과 기획사업, 연계사업 등 다양한 민간단체 문화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수행으로 지역 예술가는 물론 시민, 단체, 기업 등에 폭넓은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역량 강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한중일 교류 및 연대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통하는 문화도시 순천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별량 도흥마을 1곳만 신청

시, 공모 마감...입지선정위 구성 내년 10월 최종 선정

이례적인 유치경쟁으로 주목을 끌었던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8월 8일자 광주일보 2면 보도)에 별량 도흥마을이 후보지 신청을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두 달 간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공고를 내고 후보지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마을에는 지역개발 사업비 40억원과 마을 숙원 사업비 등 300억원의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향동 삼거리마을, 해룡 호두마을, 별량 서동·도흥마을, 서면 대구·구상·건천 마을, 율동 송치 마을 등 8곳에서 유치를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도흥마을이 1곳만 신청했다.

21가구가 사는 도흥마을은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등 4만㎡를 사업 부지로 제시했다.

다른 마을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나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공모가 마감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 대표 3명, 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10월경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공모는 마감됐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나타나면,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후보지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유치를 위해 의견을 주고 공모를 준비해주셨다"며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추가로 후보지 신청을 하는 마을이 오면 입지선정위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 방향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회, 시민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비와 시비 등 1500억원을 들여 후보지 공모를 거쳐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조계산 도립공원 친환경 탐방로 정비 추진

순천시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조계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조계산 도립공원 친환경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계산 탐방로 정비사업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월 말까지 추진되며 일부 급경사지에 목계단과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우천 시 물 고임 발생이 예상되

는 구간에 횡단 배수로와 목교를 설치한다.

정비 구간은 선암사 일원에 있는 삼인당~대각암~장군봉 간 2.06km와 대각암~비로암-작은 굴목재 간 1.925km, 비석삼거리~큰 굴목재 간 1.895km, 비석삼거리~대각암 간 0.32km 등 4개 노선이다. 이 곳

들은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탐방로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계산 도립공원의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탐방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 듬뿍 '순천 옷장 국밥축제' 8일 개최

순천시는 8일 순천 옷장 국밥 골목과 야채전 광장 일원에서 '2019 순천 옷장 국밥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는 옷장 국밥 축제는 20여개 국밥집이 참여해 뜻깊은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옷장 국밥은 일반 국밥과 달리 '돼지내장'을 사용하지 않고 삶은 돼지 머리의 살코기만을 재료로 사용해 국물 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한 그릇에 7000원짜리 국밥 2인분을 주문할 경우 수육 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해 줌으로써 그 맛과 푸짐함이 입소문을 타고 음식거리로 자리잡았다.

이번 행사는 초대 가수 공연을 비롯한 시민 노래자랑, 옷놀이 등 체험행사를 병행해 관광객들을 더욱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등 경품과 돼지저금통 1000개를 준비해 참석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순천사랑상품권 3000원권도 경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환경실천 운동 할 '순천만 친구' 찾습니다

순천시, 30일까지 50명 모집



순천시가 순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제1기 순천만 친구들'을 모집한다.

회원 자격은 공고일(9월 3일) 이전부터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순천만친구들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순천시민이다.

선발 대상은 40대 20명, 3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10명씩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총 50명이 선정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회원은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순천만과 국가정원 1년 회원권을 발급받고 순천만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 생태탐방 및 행사 참석 기회와 국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기회가 부여된다.

1기 순천만 친구들은 올 연말까지 토

론과 워크숍을 통해 자발적으로 활동방향과 범위를 모색하고 친환경 시대를 살고 있는 순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시민들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청방법은 순천만습지 홈페이지(www.suncheonbay.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jadu153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20일까지 특별감시

순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20일까지 하천과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상수원 수계, 공장밀집 지역 등 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폐수 다량배출 업체와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장 등은 사전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기간에는 상황실을 설치해 오염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추석연휴 이후에는 연휴기간 가동 중지됐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